

# 행동하는 믿음 XI.

## 본인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 1. 믿음이란?

믿음은 시선의 이동이다. 나를 보고있는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이다.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 도움을 구하는 절대 신뢰의 눈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선을 주님께 향하라 말한다.

[시편 121:1-2]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시편 121:3-8]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분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분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나를 지키신다. 곤고한 내 영혼에 그들의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음은 무엇인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다.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다. 결국 신앙은 믿음에 대한 것이며, 그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호세아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믿음의 선명함과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 2. 하나님 없는 세상

\* '믿을 것 하나 없는 곳' -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믿을 것 하나 없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지켜주며 나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내가 쌓아둔 돈, 건강, 능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아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런 생명 없는 것들이 아니다.

이 시대 불안함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 세상은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니 부족한 것 투성이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악한 영향력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한다' 이 시대의 모든 문화는 '함부로 의 문화'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치는 '힘'의 논리 위에 서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패배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약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뒤쳐진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경쟁'이고, 모든 것이 '비교'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한 마디로 말하면 '존중'이다.

### 3. 영혼을 담은 존중 (마음을 담은 존중)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존중'이다. 연약한 우리들을 그대로 받아 주셨다. 섬겨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구체적이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죄인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끝이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매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 누가 희생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음을 다해 우리를 존중하셨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담지 못한다. 같은 말이어도 '영혼'을 담은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차이가 난다. 왜 그런가?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소중히 여겨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즉, 아직 복음의 중심을 모른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핵심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0: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웃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위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도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소중히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역지사지’의 태도 - 이 사람은 항상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진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은혜는 자신 같은 부족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 4.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24:10, 12]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주목할 부분이 바로 위의 말씀이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 든다는 것),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기록되어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은혜에서 떠나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자신에게 갇혀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존중’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 부족한 나의 잔을 채워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 5. 몸,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다. 믿음의 눈은 ‘존재의 눈’이다. 현상을 보는 눈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지 않는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이다.

#### 6. ‘자기 자신을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1:7-9]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 같은 존재이다. 나귀 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나귀의 등에 가장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시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타셨다.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부족한 나 자신을 채우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여유가 필요하다. 은혜의 공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그 공간이 나를 숨쉬게 한다. 다른 것을 태우지 마라.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위해 만찬으로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여유가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열두 광주리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쫓기지 않게 된다. 마지막, 그 나귀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로 부터 오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나귀 같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어느 때보다 더 주님 만을 바라보라. 그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내 주변의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살게 하라. 바로 그곳에 주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나타나리라.